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意識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敬 蘭

2012年 8月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意識 연구

指導教授 金 日 芳

金 敬 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金敬蘭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초록]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 연구

金 敬 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日 芳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 각 3개교 총672명 학생이 대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의 경험 및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년별로는 3학년이,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이 진로교육 경험이 적었다.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 내용은 적성·흥미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교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과 진로교육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로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중 3학생들의 만족도와 도움 받은 정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고 싶어 하는 진로교육 내용은 직업적성·소질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교육 방법은 현장견학이나 실습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정보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정보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학생이 많았으나 1학년보다 3학년이 진로정보를 찾을 수 있는 비율이 더 낮았고,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는 부모, 인터넷,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탐색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진로교육 내용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히 3학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과 부모님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아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최종 인생목표를 돈에 두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현재 고민은 학업성적, 진로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 직업은 교직, 공무원, 의사 등 몇 개의 인기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도 많았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다.

넷째, 진로 선택의 경향을 보면, 장래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은 부모님, 친구나 선배, 친척이나 형제자매,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시 부모와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진로선택 장애요인으로 학업성적과 적성·소질에 대한 무지 등을 들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고, 대학진학 이유는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성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에 못지않게 돈이나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성과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돈, 학력, 가정배경, 학연·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을 들고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능력과 적성의 비율은 낮아지면서 물질적 풍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이 찬성하였고, 직업의 귀천의식 또한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의 개념	5
2.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	6
3.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10
4. 진로교육과 사회과	14
5. 선행연구의 검토	16
III.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19
2. 연구 도구	20
3. 자료 처리	21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진로교육 실태	22
1) 진로교육의 경험 및 요구	22
2) 진로정보 탐색	30
2. 진로의식	33
1) 자아 이해	33
2) 진로선택의 경향	44
3)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49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57
2. 제언	59
참고문헌	62
ABSTRACT	65
부록	67

표 목 차

<표 1>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체계	12
<표 2> 학년별 진로개발역량 관련성	16
<표 3>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19
<표 4> 질문지 구성	20
<표 5>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	22
<표 6>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	23
<표 7>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 내용	24
<표 8> 받고 싶은 진로교육 내용	25
<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만족도	26
<표 10>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쇄물의 제공 정도	27
<표 11>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	28
<표 12> 학교 진로교육 장애요인	29
<표 13> 사설 교육기관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경험 및 도움 여부	30
<표 14> 진로정보 탐색 가능 여부	31
<표 15> 진로정보 습득 경로	32
<표 16> 최종 인생목표	33
<표 17>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35
<표 18> 학교 공부의 의미	36
<표 19> 장래 희망직업	37
<표 20> 장래 희망직업 유무	38
<표 21>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이 된 것	39
<표 22> 진로에 대한 생각 정도	40
<표 23> 흥미·적성 인지 정도	41
<표 24> 소질·적성을 알게 된 방법	42
<표 25>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43
<표 26>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	44
<표 27> 진로선택 장애요인	45
<표 28> 진학 희망 고등학교	46

<표 29> 대학 진학 이유	47
<표 30> 희망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결정방법	48
<표 31>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표 32>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50
<표 33> 직업을 갖는 이유	51
<표 34> 여성이 결혼 후 직업참여에 대한 인식	52
<표 35> 직업 귀천의식	53
<표 36>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	54
<표 37> 직업정보 인지 정도	55

I. 서론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어렸을 적 가졌던 꿈을 어느 순간 잃어버린다. 그 꿈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것이었는지,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혹은 꿈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수 없는 것이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해 볼 기회도 없다. 그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막연히 좋은 대학에만 입학하면 고소득 직장에 장밋빛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적성이나 소질, 장래희망 등과 관계없이 대입공부를 할 뿐이다. 그러는 사이에 학생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린다. 꿈은 험난한 인생의 항로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이정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능력과는 거리가 먼 대학입시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자신에게 맞는 구체적인 꿈도 없이 방황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거나, 자살률이 높다는 문제, 학교 폭력이 점증하면서 더 잔인해지는 문제 등은 학생들의 잃어버린 꿈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로교육은 꿈을 찾아가는 교육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꿈을 가지게 하고, 그 꿈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인 것이다. 물론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사는 아니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학생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꿈을 찾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산업생산 및 분배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움의 창출에 의해 부가 축적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사회이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으로 직업이 생성 소멸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직업세계는 급속도로 세분화,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한다. 즉, 과거의 산업사회는 정형화된 틀에 따라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했지만, 변화가 매우 빠른 지식기반사회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평생 동안의 직업경력을 관리하며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전의 평생직장의 개념은 희박해지고 있기에, 평생 자신의 직업경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진로개발의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 부응하고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로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조직 면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연구원에 진로교육연구부 설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진로정보센터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교육과정 면에서는 1981년 제4차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로교육을 명시한 이후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의 만성적인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더욱 강조되었다(진로교육학회, 2011). 특히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의 핵심이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진로활동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기타활동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에 넣고 있으며, 중학교 과정에 『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였고, 사회·도덕·기술가정 등 보통교과에서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학교교육 전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진로발달에서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의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인식 활동의 기반 위에서 현실적인 직업선택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진로발달이론에 따르면, 성인의 직업가치관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의식은 진로탐색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사

실 진로선택은 개인의 행복을 좌우하는 척도이고, 개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계열선택이 이루어지고, 이 선택은 장래의 직업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섬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연구자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나 실천은 미흡해 보인다. 실지로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실태를 살펴봤더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건 있지만¹⁾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연구자는 제주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가치 또한 클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주지역에서의 진로교육이 겉돌고 있고 따라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4월 발표한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교의 진로교육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중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는 43개교 중 18개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의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은 1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600시간 연수를 통해 습득한 상담관련 정보마저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초·중등 진로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지역의 진로교육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

1) 현석중(2002).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교혁(2003). 제주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영(2007). 제주지역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실태와 교사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라고 본다. 진로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그 중요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널리 잠재되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식을 불식시키고 ‘진로교육이 정말 중요 하구나’하는 의식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진로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실태, 즉 중학생들이 진로교육을 받아 본 경험, 진로교육의 방법과 내용, 진로교육의 만족도, 진로정보탐색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즉 자아 이해, 진로선택의 경향,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지역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교육의 개념

진로교육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ailey & Stadt(1973)는 진로교육은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지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이라고 정의하였고, Hoyt(1974)는 “일 지향적인 사회가치에 친숙하게 하여 이 가치들을 자신의 인성적인 가치체계 속으로 통합하여 일을 통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조력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김충기 외4, 2011 재인용). 임언(2008)은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 즉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지연 외(2009)는 “진로교육이란 개인이 삶에 필요한 생애역할·평생학습·일·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습경험의 총체를 의미한다. 진로교육으로 인하여 각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여, 마침내 직업세계에 진입하며 행복한 삶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장석민(2011)은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하여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충기(2011)는 “진로교육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에 따라 적합한 진로를 찾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워서 적응과 발달을 꾀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교육활동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진로교육은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이라는 점이다. 삶을 행복하고 만

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진로가 중요하고 그 진로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위의 정의와 달리 Bell&Hoyt(1974)는 진로교육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기본개념으로 8개 요소 즉, ①모든 사람이 대상이고 ②진학과 취업의 한 시점뿐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애주기를 포함하며 ③보다 합리적인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④지속적인 진로발달을 지향하고 ⑤모든 활동, 즉 학습, 일, 여가, 취미활동 등을 포괄하며 ⑥다양한 직업분야와 일의 가치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⑦사회적 생산성을 지향하고 ⑧궁극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진로개발역량 및 구직기술 습득과 취업 등의 성과를 지향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지연, 정윤경, 이종범, 2010 재인용).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진로교육이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탐색하여 합리적인 진로선택 및 진로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미래에 행복한 개인으로, 생산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

1) 학교 교육환경 변화의 측면

지금까지 중학교 진로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부실하게 운영됨은 물론 연구측면에서도 고등학교 진로교육에 비하여 관심을 적게 받아왔다. 대학입시나 취업으로 직접 연결되는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에 비해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경향이 있어온 것이다(서유정·김승보·고재성, 2011). 이러한 상황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은 10년으로 짜여있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공통교육과정으로 변경하면서 기간을 9년으로 축소하였다. 때문에 학생들은 중학교 단계에서 일반계고·특성화고의 진로선택은 물론 인문계·자연계의 계열선택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고등학교 자율화·다양화 정책

으로 여러 형태의 고등학교가 점차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선발방식 또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즉, 처음으로 고등학교라는 자신의 진로결정을 해야 중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특별히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활동을 하위영역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신설되고,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이 설정된 것이 증거이다. 이러한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그동안 학교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진학지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선호되어 왔으며, 입시와 관련성이 적은 교과목 및 비교과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계고·특성화고, 문과·이과, 대학 학과 등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며, 학습효과 저하, 대학 진학 과잉, 재수와 편입이 난립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선택의 중심을 학업성적에 두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의사, 법조인, 공무원 등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일부 직종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직종에 대한 높은 선호와 제조업 등의 사회적·생산직종에 대한 외면은 사회 경제적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자율화·다양화 정책을 통한 고등학교 혁신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는 등 성적중심의 입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김승보·방혜진, 2010).

이러한 그동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로교육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힘든 과제 하나를 더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실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학생의 발달 단계적 측면

진로교육은 초등학교 수준부터 발달단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된 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하나의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택한 직업에서 잘 적응하고 발전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아상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교육이다(김충기, 2000). 즉 진로교육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학생은 학생자신이 처음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로서 진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의 진로발달 단계는 진로탐색의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인식 활동의 기반위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준비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중학교 단계는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소망하는 직업적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진로교육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한 진로교육활동이 전제되어야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를 토대로 진로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탐색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적 기능을 길러주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 성격, 흥미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즉 중학교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자신의 능력·적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장래 직업에 대한 진로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기초소양과 지식을 토대로 자신에게 적합한 잠정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흔히 진로계획은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중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탐색의 기반위에서 진로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강보영, 2010). 즉 자신에게 맞는 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진로설계는 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자신이 꿈꾸는 직업적 특성과 관련해서 진로교육활동을 하고 이를 토대로 늦지 않게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에게 맞는 진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의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중요한 중학교 단계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특징은 진로발달 이론의 대표학자인 Ginzberg와 Super의 이론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Ginzberg는 진로발달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3단계로 발달하는데 중학생 시기는 잠정기의 하위단계 중에서 능력단계(13-14세)와 가치단계(15-16세)에 해당된다. 능력단계는 자신의 직업적인 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시기이고, 가치단계는 자기의 직업선호와 관련된 모든 요인을 알아보며, 그러한 직업선호를 자신의 가치관 및 생애 목표에 비추어 평가해 보는 시기라고 하였다. 또 Super는 진로발달은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시기는 성장기 중 능력기(13-14세)와 탐색기 중 잠정기(15-17세)에 해당된다. 능력기는 진로선택에서 능력을 중시하며 직업에서의 훈련조건을 중시하는 시기이고, 잠정기는 개인은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기회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또한 환상이나, 토론, 일의 경험 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 본다고 한다(김충기외, 2011). 이러한 발달단계에 비추어 볼 때,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의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 시기와 고등학교의 구체적인 진로결정을 앞둔 시기 사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자신의 선호직업과 관련된 모든 요인을 알아보는 시기로 진로탐색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중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1973년 Evans가 제시한 중학교 나이 청소년들의 진로발달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①중학생들은 직업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직업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직업적 성숙의 정도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이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의 직업적 성숙 사이에는 정적 상관이 있다. ③이 나이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직업적 의사결정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생애탐색에 대한 강조가 직업적 의사 결정에 대한 강조보다 더 적절하다. ④중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문화권의 어른들과 대단히 유사한 직업적 고정관념을 가진 채 학교에 온다. ⑤중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은 남녀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⑥중학생들의 직업적 포부는 이 학생들이 성별에 더 영향을 받고, IQ나 사회경제적 지위로부터는 덜 영향을 받는다. 성적 고

정관념이 직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생애발달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조정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⑦중학생들은 어떤 직업가치관을 가지고 입학하는데,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없다면 고3학년까지 대단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기 쉽다. ⑧70% 이상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선택한 구체적인 직업선택을 고등학교 3학년 이전에 변경할 수 있다. ⑨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스스로 선택해도 될 만큼 충분한 정도의 진로성숙을 이루고 있다. ⑩학생들의 직업적 성숙은 직업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섭렵, 충분한 상담·지도, 그리고 일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고양될 수 있다. ⑪능력과 적성은 성인들의 직업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중학생의 경우는 충분히 발달된 것이 아니다. ⑫진로와 관련된 능력, 적성, 가치관등과 같은 속성들은 중학교 시기 동안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며,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강재태·배종훈·강대구, 2003).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달 과정에 있는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는 일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가치관 확립 및 진로성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시기의 발달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것이 전제될 때 진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일이 가능해 진다고 할 것이다.

3.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진로교육의 목표는 진로교육의 방향과 기본틀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의 지침이 되며, 학교 진로교육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198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를 시작으로 장석민(2001), 이영대(2004)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요소와 영역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나라

초·중·고 진로교육 목표와 관련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년 학생발달 수준에 따른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는 학교급 간의 목표를 체계화함으로써 중복성과 연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식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학교 진로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며, 진로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로부터 직업세계로의 이행, 진로변경이나 직업이동과 같은 진로개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로개발역량이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갈 수 있는 역량으로, ①자아이해와 사회적 기초역량 ②일과 직업세계의 종합적·객관적 이해 ③자신의 향후 진로와 관련된 교육기회 및 직업정보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역량 ④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으로 구성되며, 태도·지식·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진로개발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학생들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개발역량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학교 진로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의 4영역으로 구분하고 학교급별로 세부적인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초등학교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을 기르도록 하고, 중학교는 기초적인 진로역량을 발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이후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하며, 고등학교는 진로와 관련한 직업이나 교육기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디자인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를 보면 ①긍정적 자아개념을 강화하고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역량을 발전시킨다. ②직업 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

고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③중학교 이후의 교육경로, 직업인 역할 모델을 비롯한 관심 분야의 진로·직업에 관한 다양한 탐색과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직업을 탐색하는 역량을 기른다. ④자신과 진로·직업 및 교육 세계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기른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목표와 성취지표를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 1>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 체계

전체 목표		학생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중학교 목표		초등학교에서 함양된 진로개발역량의 기초를 발전시키며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준비한다.
대 요 역	중영역	중학교 세부목표 및 성취지표
자 아 이 해 와 사 회 적 역 량 개 발	자아 이해 및 긍정 적 자아 개념 형성	○ 자아 존중감을 갖고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함양한다. - 스스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 자신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다. - 자기 관리의 여러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 여러 가지 방법(직업심리검사, 중요한 타자에 의한 평가)으로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방법(직업심리검사, 중요한 타자에 의한 평가)으로 자신의 직업흥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심리검사의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꿈과 비전을 구체화시킨다. - 자신의 꿈과 연결된 진로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대인 관계 및 의사 소통 역량 개발	○ 대상과 상황에 맞는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한다. - 상황별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경청과 설득 등 의사소통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공감을 적절히 드러내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일과 직업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직업 유형과 진로 경로를 이해한다. -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일의 유형과 직업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 사회 변화가 직업세계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새로운 직업과 사라진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세계의 변화가 자신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20년 후 나타날 새로운 직업이나 일의 유형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근로자로서 갖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생활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일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진로 탐색	교육기회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개방적인 인식을 발전시킨다. -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기회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진로에서 학습의 중요성을 알고 노력한다. - 자신의 미래진로를 위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한다. - 여러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원하는 진로에 관련된 고등학교를 여러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진로 탐색	직업정보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원하는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 직업정보 탐색을 위하여 진로교사나 진로상담가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업정보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원하는 진로의 역할 모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진로 의사결정	진로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한다. -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인 과 준 비	능력 개발	○ 진로의사결정에서 진로장벽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진로장벽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이 원하는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진로장벽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진로 계획	○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다. -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자신의 미래진로 시나리오에 대하여 장단기 계획(고교·대학진학, 직업 등)을 세울 수 있다.
	과 준비	○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한다. -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다.

* 출처 : 학교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교육과학기술부(2012)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에서 중학교 단계는 일반적인 교육에서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고, 신체적인 남녀 간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며,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시기이고, 학생의 주체적인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진로교육의 중심은 진로의 의미와 진로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체험학습 및 자기개발 함양에 있다. 즉, 중학교 단계의 진로교육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진로·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진로교육과 사회과

1) 사회과의 특성과 진로교육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사회과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사회과의 목표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역량 함양이라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태도함양은 진로교육의 원만한 인간관계 기술 습득 및 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함양과 연관성이 있다. 사회과는 사회의 여러 영역의 내용을 생활과 관련지어 교육하므로 진로교육의 일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사실 사회과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교과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교과 지식이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른다. 단순히 학교공부를 위해 암기하는 지식쯤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변화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능 등을 익혀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2008년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한국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며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입시와 함께 사라지는 암기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사회과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2) 진로교육과 사회과의 연계방법

사회과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판단 및 의사결정력 등의 신장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지향한다.

이러한 사회과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은 상호공통요소를 중심으로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형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 태도형성,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해석·활용, 진로계획의 수립·관

리·실천, 진로 및 개인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손경희(2009)가 제시한 <표2>의 사회교과의 학년별 진로개발역량 관련성을 보면 사회과는 많은 영역에서 진로교육과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년별 진로개발역량 관련성

학년	중1			중2		중3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역사	일반 사회	지리	역사
자기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		○		○	○		
직업세계의 이해 및 긍정적 가치와 태도 형성	○	○				○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 해석, 활용		○			○	○	
자신의 진로를 위한 진로계획의 수립, 관리, 실천	○					○	○

출처 :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사회과의 진로교육. 손경희(2009)

사회과에서의 진로교육 방법은 교과목의 개념 전달과 진로교육의 자기주도적 체험방식이 결합된 형식이어야 한다. 학생들이 교과내용이 자신의 실제생활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활동지를 갖고 동료들과 활동을 공유하는 토론학습과 협동학습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 교과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이 진로를 합리적으로 탐색·계획·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들의 적성·흥미·능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자아 인식 능력,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의사결정능력 등을 길러줘야 할 것이다.

5. 선행연구의 검토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진로교육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 각 교과차원의 진로교육내용 분석,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등 다각적인 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진로의식 및 진로교육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준·정윤경의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조사대상에서 제주지역은 제외됨)에 따르면 중학생의 인생 최종목표는 ‘돈’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장래 희망직업도 10개정도의 직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12.3%만이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진로교육이 진로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임영주(2001)는 ‘중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경기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로교육은 매우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받은 적 없고, 군지역의 경우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는 학교보다 학교 외에서, 진로선택은 돈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순권(2004)은 ‘중학생의 진로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충남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고, 진로결정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이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은 현장견학·실습 등을 통한 교육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숙(2005)은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충북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결과 중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교육 실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 선택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소질·적성을 몰라서인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자옥(2006)은 ‘중학생 진로교육의 실태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수원시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았고, 진로상담 대상자는 부모님이 가장 많고 진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문제, 성적문제로 나타났고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직업의 귀천여부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귀천이 있다는 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임병호(2007)는 ‘국가별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교육 실태 비교 연구’에서 우리나라 진로교육 시기는 17세로 다른 나라, 즉 독일 11세, 영국 12세, 프랑스 14세 등에 비하여 직업탐구 및 직업결정에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였다.

송기용(2008)은 ‘중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강원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진로인식은 남녀 간,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보호자 학력, 보호자 직업에 따라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맹영임·임경희(2008)은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인식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로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진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진로상담 전담교사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교과 통합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감하였다.

김경식(2008)은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식과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현황 연구’에서 고등학교 진학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과 학과와 관련된 직업정보나 직업의 장래성 등 학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학생들의 학교 적응 정도는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낮았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정미(2009)는 ‘고등학생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에서 인천지역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의 경험은 적고,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구범위도 진로교육 지표조사와 같은 전국적 단위는 물론 각 지역별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이 생각하는 진로교육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제주지역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43개교 중에서 제주시 3개교, 서귀포시 3개교, 읍면지역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교별로 1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672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응답자의 구체적인 배경변인별 분포는 <표3>과 같다.

<표 3> 응답자의 배경변인별 분포

구분		표집수(명)	백분율(%)
성별	남	344	51.2
	여	328	48.8
학년	1학년	327	48.7
	3학년	345	51.3
지역별	제주시	308	45.8
	서귀포시	225	33.5
	읍·면	139	20.7
학생이 생각하는 경제수준	상	26	3.9
	중상	148	22.1
	중	373	55.8
	중하	103	15.4
	하	19	2.8
학생이 생각하는 학업수준	상	43	6.5
	중상	174	26.4
	중	254	38.5
	중하	140	21.2
	하	49	7.4
아버지의 학력수준	초졸	4	0.6
	중졸	27	4.1
	고졸	242	37.1
	대졸 이상	320	49.0
	기타	60	9.2
어머니의 학력수준	초졸	6	0.9
	중졸	16	2.4
	고졸	282	42.0
	대졸 이상	289	43.0
	기타	55	8.2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461	68.6
	맞벌이 안함	199	29.6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 도구는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 와 중학생의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마순권(2004), 김자옥(2006),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전(前)단계인 일반적인 사항과, 진로교육 실태, 진로의식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영역은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와 요구, 중학교 진로교육 목표 중 진로정보 탐색, 자아 이해, 진로선택 경향,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진로교육 실태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진로교육에 만족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 내용이나 방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에서 강조되는 학생들의 진로정보 탐색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진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진로의식과 관련해서는 자아 이해 정도, 즉 진로계획에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 설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로선택의 경향, 즉 진로결정과 정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부딪치는 진로장벽을 알고 해결하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즉 중학생 시기에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갖고 직업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극복하여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4>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

질문영역	질문내용	문항수
일반적인 사항	성별 및 학년, 사는 지역 학생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및 학업성적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맞벌이 여부	8

질문영역	질문내용	문항수
진로교육 경험 및 요구	진로교육 경험 유무 진로교육 만족도 원하는 진로교육 방법 및 내용 진로교육 장애요인 등	7
진로정보 탐색	사설 진로교육기관 상담 경험유무 진로정보 탐색 가능 여부 진로정보 습득 경로	3
자아이해	최종 인생목표 및 희망직업 가장 큰 고민거리 학교 공부의 의미 진로·직업에 대한 생각여부 적성·흥미 인지정도 소질 적성을 알게 된 방법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8
진로선택의 경향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 진로선택 장애 요인 진학 희망 고등학교 대학 진학이유 희망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결정방법	5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인생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을 갖는 이유 여성의 직업참여에 대한 인식 직업 귀천의식 성별에 따른 일의 차이 직업정보 인지 정도	7
계		38

3. 자료 처리

설문에 응답한 인원 중 항목에 대한 무응답은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spss v12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항목별 카이제곱검정과 ANOVA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기본요인으로는 남녀, 학년, 사는 곳, 경제수준, 학업수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을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진로교육 실태

1) 진로교육의 경험 및 요구

(1)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

<표 5>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 (단위 : 명, %)

		있다	없다	전체	χ^2 (p)
전체		537 (80.1)	133 (19.9)	670 (100.0)	*무응답2
학년	1학년	250 (76.5)	77 (23.5)	327 (100.0)	5.486 (0.019)
	3학년	287 (83.7)	56 (16.3)	343 (100.0)	
지역별	제주시	259 (84.4)	48 (15.6)	307 (100.0)	11.408 (0.003)
	서귀포시	164 (72.9)	61 (27.1)	225 (100.0)	
	읍면동	114 (82.6)	24 (17.4)	138 (100.0)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학생은 537명으로 80.1%이며, 경험이 없는 학생은 133명으로 19.9%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년별($\chi^2=5.486$, $p=0.0019$), 지역별($\chi^2=11.408$, $p=0.00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8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년 별로 보면 1학년이 76.5%, 3학년이 83.7%로, 3학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84.4%, 서귀포시 72.9%, 읍면동 82.6%로 나타나, 서귀포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지역이 시지역보다 진로교육을 받아본 비율이 낮

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80.1%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한 1998년 ‘중학생의 진로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의 진로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28.4%, 2007년 ‘진로교육 지표조사’의 진로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55.9%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학교 내에서 진로교육이 실시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

<표 6>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체	F(p)
전체		11 (2.0)	143 (26.4)	278 (51.4)	77 (14.2)	32 (5.9)	541 (100.0)	*무응답 131
학년	1학년	8 (3.2)	75 (29.9)	129 (51.4)	25 (10.0)	14 (5.6)	251 (100.0)	7.499 (0.006)
	3학년	3 (1.0)	68 (23.4)	149 (51.4)	52 (17.9)	18 (6.2)	290 (100.0)	
지역	제주시	5 (1.9)	71 (27.3)	136 (52.3)	32 (12.3)	16 (6.2)	260 (100.0)	9.428 (0.307)
	서귀포시	1 (0.6)	37 (22.7)	90 (55.2)	27 (16.6)	8 (4.9)	163 (100.0)	
	읍면동	5 (4.2)	35 (29.7)	52 (44.1)	18 (15.3)	8 (6.8)	118 (100.0)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나 지도가 자신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은 11명으로 전체의 2.0% 정도이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은 143명으로 26.4%정도이다.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은 278명으로 51.4%이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인원은 77명으로 14.2%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년별($F=7.499$, $p=0.006$)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하였고, 28.4%의 학생만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아직 진로교육이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별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1학년 33.1%, 3학년 24.4%로 3학년이 낮게 나타나 진로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가야 하는 시기의 3학년이 진로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로탐색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이 제주시 29.2%, 서귀포시 23.3%, 읍면동 33.9%로 서귀포시 지역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3) 진로교육 내용

<표 7>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 내용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성흥미검사	294	43.8	65.2
직업세계 정보와 지도	48	7.1	10.6
직업현장 방문	11	1.6	2.4
진학정보	35	5.2	7.8
기타	63	9.4	14.0
합계	451	67.1	100.0
무응답	221	32.9	
합계	672	100.0	

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적성흥미검사’가 294명으로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세계 정보와 지도’가 48명으로 10.6%를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은 ‘적성 흥미검사’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아직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내용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받고 싶은 진로교육 내용

<표 8> 받고 싶은 진로교육 내용

(단위 : 명, %)

		직업적 성소질 정보	유망 직업 정보	진학 정보	자격증 정보	기타	전체	χ^2 (p)
전체		366 (55.2)	87 (13.1)	141 (21.3)	60 (9.0)	9 (1.4)	663 (100.0)	무응답 9
성별	남	168 (49.9)	58 (17.2)	67 (19.9)	39 (11.6)	5 (1.5)	337 (100.0)	17.807 (0.001)
	여	198 (60.7)	29 (8.9)	74 (22.7)	21 (6.4)	4 (1.2)	326 (100.0)	
학년	1학년	186 (57.8)	45 (14.0)	52 (16.1)	37 (11.5)	2 (0.6)	322 (100.0)	15.424 (0.004)
	3학년	180 (52.8)	42 (12.3)	89 (26.1)	23 (6.7)	7 (2.1)	341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23 (53.5)	6 (14.0)	10 (23.3)	4 (9.3)	0 (0.0)	43 (100.0)	29.714 (0.020)
	중상	106 (60.9)	25 (14.4)	31 (17.8)	11 (6.3)	1 (0.6)	174 (100.0)	
	중	135 (54.0)	33 (13.2)	58 (23.2)	22 (8.8)	2 (0.8)	250 (100.0)	
	중하	77 (57.0)	20 (14.8)	23 (17.0)	11 (8.1)	4 (3.0)	135 (100.0)	
	하	17 (34.7)	3 (6.1)	17 (34.7)	10 (20.4)	2 (4.1)	49 (100.0)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240 (52.9)	65 (14.3)	106 (23.3)	40 (8.8)	3 (0.7)	454 (100.0)	12.723 (0.013)
	맞벌이 안함	120 (60.9)	22 (11.2)	30 (15.2)	19 (9.6)	6 (3.0)	197 (100.0)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알고 싶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직업적성소질 정보’로 응답한 인원이 366명으로 전체 응답인원의 55.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진학정보’는 21.3%, ‘유망직업 정보’는 13.1%, ‘자격증정보’는 9.0%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chi^2=17.807$, $p=0.001$), 학년별($\chi^2=15.424$, $p=0.004$), 학업성적 수준별($\chi^2=29.714$, $p=0.020$), 부모님 맞벌이 여부($\chi^2=12.723$, $p=0.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진로교육을 통해 알고 싶은 내용은 ‘직업적성·소질정보’가 55.2%를 차지해 많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 보면 여학생이 60.7%, 남학생이 49.9%로 여학생이 ‘직업적성 및 소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으며, ‘유망직업 정보’에 대한 응답비율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57.8%, 3학년 52.8% 학생들이 직업적성·소질정보를 알고 싶어 했고, 3학년 학생 중 26.1%는 ‘진학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대부분 직업적성과 진학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으나, 하위 수준의 학생들은 ‘자격증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비율도 2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수준별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교육 내용 자료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관련 만족도

<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 만족도 (단위 : 명, %)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전체	F(p)
전체		17 (2.6)	151 (22.7)	367 (55.1)	98 (14.7)	33 (5.0)	666 (100.0)	무응답 6
학년	1학년	11 (3.4)	94 (29.0)	183 (56.5)	23 (7.1)	13 (4.0)	324 (100.0)	29.999 (0.000)
	3학년	6 (1.8)	57 (16.7)	184 (53.8)	75 (21.9)	20 (5.8)	342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 (2.3)	7 (16.3)	26 (60.5)	5 (11.6)	4 (9.3)	43 (100.0)	30.565 (0.015)
	중상	6 (3.5)	48 (27.7)	78 (45.1)	36 (20.8)	5 (2.9)	173 (100.0)	
	중	7 (2.8)	62 (24.6)	141 (56.0)	27 (10.7)	15 (6.0)	252 (100.0)	
	중하	2 (1.4)	22 (15.9)	91 (65.9)	19 (13.8)	4 (2.9)	138 (100.0)	
	하	1 (2.1)	7 (14.6)	26 (54.2)	9 (18.8)	5 (10.4)	48 (100.0)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인원은 2.6%, ‘만족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2.7%,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55.1%,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14.7%,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인

원은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한 결과 학년별($F=29.999$, $p < 0.001$), 학업성적 수준별($F=29.999$, $p < 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비율은 25.3%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학년별로 보면 만족하는 비율이 1학년 32.4%보다 3학년 18.5%,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1학년 11.1% 3학년 27.7%로 3학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진로교육의 경험이 많은 3학년이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진로교육이 아직 학생들의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중상위 그룹 학생들이 만족하는 비율과 불만족 하는 비율이 모두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상위 그룹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쇄물의 제공정도

<표 10>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쇄물의 제공정도 (단위 : 명, %)

		매우 충분하다	충분 하다	그저 그렇다	조금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F(p)
전체		10 (1.5)	97 (14.5)	373 (55.6)	123 (18.3)	68 (10.1)	671 (100.0)	무응답 1
학년	1학년	7 (2.1)	63 (19.3)	194 (59.5)	45 (13.8)	17 (5.2)	326 (100.0)	37.694 (0.000)
	3학년	3 (0.9)	34 (9.9)	179 (51.9)	78 (22.6)	51 (14.8)	345 (100.0)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자나 인쇄물의 제공에 대해서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0명으로 1.5%정도로 매우 낮으며, ‘충분하다’ 14.5%, ‘그저 그렇다’ 55.6%, ‘조금 부족하다’ 18.3%, ‘매우 부족하다’ 10.1%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한 결과 학년별($F=37.364$, $p < 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인쇄물의 제공에 대한 충분성 여부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저 그렇다’(55.6%)고 하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16%,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4%로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이 12.4% 많았다. 특히 학년에 따른 차이가 많았는데 1학년은 19%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반면, 3학년은 37.4%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충분하다는 생각도 1학년은 21.4%인 반면 3학년은 10.8%로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3학년들에게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정보 제공은 물론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이 더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진로관련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은 진로교육 방법 중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형태와 입시전형이 다양화 되는 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로에 대한 인쇄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

<표 11> 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방법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현장견학, 실습	337	50.1	50.2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시간	79	11.8	11.8
전문가 초빙 강의	71	10.6	10.6
진로담당교사를통해	96	14.3	14.3
별도의 진로교육프로그램	66	9.8	9.8
기타	22	3.3	3.3
합계	671	99.9	100.0
무응답	1	0.1	
합계	672	100.0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체인원의 50.2%의 많은 학생들이 ‘현장견학, 실습’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진로담당교사를 통한 교육’ 14.3%, ‘교과와 연계한 수업시간’ 11.8%, ‘전문가 초빙강의’ 10.6%,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9.8% 등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세계의 현상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나라는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여 학생들의 체험에는 많

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교육방법이고, 2006 PISA 조사결과 OECD 국가 중에 체험형 진로교육 제공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을 생각할 때 체험형 진로교육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8) 학교 진로교육 장애요인

<표 12> 학교 진로교육 장애요인

(단위 : 명, %)

		시험준비	진로 정보 자료가 부족	진로 전담교사	관심이 부족	전체	χ^2 (p)
전체		173 (26.1)	108 (16.3)	155 (23.3)	228 (34.3)	664 (100.0)	무응답 8
성별	남	80 (23.7)	55 (16.3)	69 (20.4)	134 (39.6)	338 (100.0)	9.682 (0.021)
	여	93 (28.5)	53 (16.3)	86 (26.4)	94 (28.8)	326 (100.0)	
학년	1학년	62 (19.3)	48 (15.0)	80 (24.9)	131 (40.8)	321 (100.0)	19.736 (0.000)
	3학년	111 (32.4)	60 (17.5)	75 (21.9)	97 (28.3)	343 (100.0)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28명으로 34.3%이며, ‘시험 준비’라고 응답한 학생은 173명으로 26.1%를 보이고 있다. 그 외 ‘진로 전담교사’는 23.3%, ‘진로 정보자료의 부족’이 16.3%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성별($\chi^2=9.682, p<0.05$), 학년별($\chi^2=19.736, p<0.001$)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부족해서라는 학생이 가장 많았지만, 시험 준비, 진로 전담교사, 진로정보 자료부족의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의견이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들은 관심부족이 39.6%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관심부족(28.8%), 시험 준비(28.5%), 진로 전담교사(23.3%) 항목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은 관심부족이 40.8%로 가장 많았지만, 3학년은 시험 준비가

32.4%로 가장 많아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시험 준비가 진로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정보 탐색

(1) 사설 교육기관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경험 및 도움여부

<표 13> 사설 교육기관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경험 및 도움여부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상담경험 유무	있다	120	17.9	17.9
	없다	552	82.1	82.1
	합계	672	100.0	100.0
상담의 도움여부	매우 도움이되었다	6	0.9	5.0
	도움이 되었다	41	6.1	34.2
	보통이다	49	7.3	40.8
	도움이 되지 않았다	14	2.1	1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	1.5	8.3
	합계	120	17.9	100.0

사설 교육기관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0명으로 17.9%이며,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52명으로 82.1%로 나타나고 있다.

사설 교육기관의 상담의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6명으로 5%이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41명으로 34.2%,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49명으로 40.8%정도를 보이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명으로 11.7%로 나타나고 있다.

사설 교육기관에서의 진로교육 경험은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의 10.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설 교육기관의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학교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 내에서 지도하거나 또는 사설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등 발전적인 진로교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진로정보 탐색 가능여부

<표 14> 진로정보 탐색 가능여부

(단위 : 명, %)

		할 수 있다	보통이다	할 수 없다	전체	χ^2 (p)
전체		301 (45.1)	298 (44.7)	68 (10.2)	667 (100.0)	무응답 5
학년	1학년	171 (52.8)	136 (42.0)	17 (5.2)	324 (100.0)	24.332 (0.000)
	3학년	130 (37.9)	162 (47.2)	51 (14.9)	343 (100.0)	
경제 수준	상	18 (72.0)	7 (28.0)	0 (0.0)	25 (100.0)	27.850 (0.001)
	중상	76 (52.1)	60 (41.1)	10 (6.8)	146 (100.0)	
	중	153 (41.2)	184 (49.6)	34 (9.2)	371 (100.0)	
	중하	47 (45.6)	38 (36.9)	18 (17.5)	103 (100.0)	
	하	6 (31.6)	8 (42.1)	5 (26.3)	19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28 (65.1)	12 (27.9)	3 (7.0)	43 (100.0)	30.755 (0.000)
	중상	97 (56.7)	62 (36.3)	12 (7.0)	171 (100.0)	
	중	111 (43.9)	120 (47.4)	22 (8.7)	253 (100.0)	
	중하	48 (34.5)	69 (49.6)	22 (15.8)	139 (100.0)	
	하	15 (30.6)	26 (53.1)	8 (16.3)	49 (100.0)	

자신이 원하는 장래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301명으로 45.1%,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298명으로 44.7%,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68명으로 10.2%정도를 보이고 있다. 변인별로 분석결과 학년별($\chi^2=24.332$, $p<0.001$), 경제수준별($\chi^2=27.850$, $p=0.001$), 학업성적 수준별($\chi^2=30.755$,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할 수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10.2%에 불과해 많은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진로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년별로 보면, ‘할 수 없다’는 학생이 1학년 5.2%에 비해 3학년 14.9%로 높아지고 있어 3학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생각하는 경제수준별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

록 할 수 없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이 생각하는 학업성적 수준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탐색과 관련해서는 중학교 3학년 및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에 더 많은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진로탐색은 진로발달 단계상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진로탐색은 이후의 진로 의사결정 및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도되어야 한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의 종류와 입시제도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절실하다.

(3) 진로정보 습득 경로

<표 15> 진로정보 습득 경로

(단위 : 명, %)

		선생님	부모	선배나 친구	신문,라디오, TV,도서	인터넷	전체	χ^2 (p)
전체		143 (21.4)	205 (30.7)	72 (10.8)	76 (11.4)	171 (25.6)	667 (100.0)	무응답 5
학년	1학년	70 (21.6)	105 (32.4)	21 (6.5)	43 (13.3)	85 (26.2)	324 (100.0)	13.476 (0.009)
	3학년	73 (21.3)	100 (29.2)	51 (14.9)	33 (9.6)	86 (25.1)	343 (100.0)	

학생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 지에 대해서는 ‘부모’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은 25.6%, ‘선생님’은 21.4%, ‘신문, 라디오, TV,도서’는 11.4%, ‘선배나 친구’는 10.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별로 분석결과 학년별($\chi^2=13.476$, $p=0.00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는 부모가 가장 많고, 인터넷, 선생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나 언론매체에서 정보를 얻는 경우는 줄어들고 선배나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정보를 부모로부터 얻는 만큼 부모진로교육 기회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통하여 진로정보를 얻는 비율은 21.4%로 다소 낮게 나타나 선생님이 진로정보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생님이 일반적인 진로정보에 대한 지도를 하고,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의 내용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다.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진로 의식 및 진로 개발역량 향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연수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지도 능력 향상시켜야 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진로 의식

1) 자아 이해

(1) 최종 인생 목표

<표 16> 최종 인생 목표

(단위 : 명, %)

		돈	명예	권력	인기	봉사	기타	아직 없다	전체	χ^2 (p)
전체		223 (33.4)	96 (14.4)	54 (8.1)	30 (4.5)	28 (4.2)	74 (11.1)	162 (24.3)	667 (100.0)	무응답 5
성별	남	134 (39.3)	57 (16.7)	18 (5.3)	7 (2.1)	26 (7.6)	30 (8.8)	69 (20.2)	341 (100.0)	26.610 (0.000)
	여	89 (27.3)	39 (12.0)	12 (3.7)	21 (6.4)	28 (8.6)	44 (13.5)	93 (28.5)	326 (100.0)	
지역 별	제주시	96 (31.4)	45 (14.7)	12 (3.9)	16 (5.2)	24 (7.8)	38 (12.4)	75 (24.5)	306 (100.0)	9.816 (0.632)
	서귀포시	73 (32.6)	32 (14.3)	9 (4.0)	9 (4.0)	21 (9.4)	20 (8.9)	60 (26.8)	224 (100.0)	
	읍면동	54 (39.4)	19 (13.9)	9 (6.6)	3 (2.2)	9 (6.6)	16 (11.7)	27 (19.7)	137 (100.0)	
경제 수준	상	4 (16.0)	7 (28.0)	2 (8.0)	1 (4.0)	3 (12.0)	1 (4.0)	7 (28.0)	25 (100.0)	38.163 (0.033)
	중상	61 (41.5)	25 (17.0)	8 (5.4)	8 (5.4)	13 (8.8)	13 (8.8)	19 (12.9)	147 (100.0)	
	중	119 (32.1)	50 (13.5)	16 (4.3)	11 (3.0)	25 (6.7)	41 (11.1)	109 (29.4)	371 (100.0)	
	중하	34 (33.3)	11 (10.8)	4 (3.9)	7 (6.9)	9 (8.8)	16 (15.7)	21 (20.6)	102 (100.0)	
	하	5 (26.3)	2 (10.5)	0 (0.0)	1 (5.3)	4 (21.1)	2 (10.5)	5 (26.3)	19 (100.0)	
부모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170 (37.0)	68 (14.8)	25 (5.4)	16 (3.5)	30 (6.5)	48 (10.4)	103 (22.4)	460 (100.0)	15.947 (0.014)
	맞벌이 안함	51 (26.0)	26 (13.3)	5 (2.6)	10 (5.1)	23 (11.7)	26 (13.3)	55 (28.1)	196 (100.0)	

학생의 최종목표를 묻는 질문에 최종인생의 목표가 있는 학생은 505명으로 전체의 75.7%, 최종목표가 ‘아직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4.3%였다. 최종목표가 있다고 반응한 학생들 중에 ‘돈’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23명, 33.4%로 타 목표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명예’는 14.4%, ‘봉사’는 8.1%, ‘권력’은 4.5%, ‘인기’는 4.2%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별로 분석결과 성별($\chi^2=26.610$, $p<0.001$), 경제적 수준별($\chi^2=38.163$, $p=0.033$), 부모님 맞벌이 여부 ($\chi^2=38.163$, $p=0.033$)에 따라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인생의 최종목표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많기는 하지만, 없는 학생도 24.3%로 다소 많다. 성별로는 남학생(20.2%)보다 여학생이(28.5%)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귀포시지역이 26.8%로 다른 지역보다 인생목표가 없는 학생이 조금 많았다. 인생의 목표는 학생들이 열정을 갖게 하고 도전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생의 최종목표를 돈에 두고 있는 학생 33.4%는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 결과의 38%보다는 낮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돈을 인생의 최종목표로 삼는 것은 동일하였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중상위 집단에서 돈에 응답한 비율이 41.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 맞벌이 여부에서 보면 맞벌이가정 학생의 인생목표가 돈인 비율이 37%로 그렇지 않은 집단 26%보다 11% 높게 나타났다. 돈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돈 다음으로 인생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명예, 봉사, 권력, 인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적인 조사결과인 ‘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 인생목표가 돈, 명예, 권력인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상위 집단에서는 돈(16%)보다 명예가(2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위 집단에서는 봉사에 응답한 비율도 21.1%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표 17>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

(단위 : 명, %)

		진로	성적	친구	가족	건강	기타	전체	χ^2 (p)
전체		129 (19.5)	384 (58.0)	35 (5.3)	25 (3.8)	32 (4.8)	57 (8.6)	662 (100.0)	무응답 10
학년	1학년	40 (12.3)	169 (52.0)	26 (8.0)	18 (5.5)	25 (7.7)	47 (14.5)	325 (100.0)	71.168 (0.000)
	3학년	89 (26.4)	215 (63.8)	9 (2.7)	7 (2.1)	7 (2.1)	10 (3.0)	337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0 (23.8)	15 (35.7)	3 (7.1)	2 (4.8)	6 (14.3)	6 (14.3)	42 (100.0)	48.831 (0.000)
	중상	48 (27.9)	78 (45.3)	11 (6.4)	7 (4.1)	6 (3.5)	22 (12.8)	172 (100.0)	
	중	47 (18.7)	156 (62.2)	9 (3.6)	11 (4.4)	9 (3.6)	19 (7.6)	251 (100.0)	
	중하	19 (13.7)	95 (68.3)	9 (6.5)	4 (2.9)	7 (5.0)	5 (3.6)	139 (100.0)	
	하	3 (6.5)	31 (67.4)	3 (6.5)	1 (2.2)	4 (8.7)	4 (8.7)	46 (100.0)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성적’을 고민하는 학생이 58%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 19.5%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항목에서는 10%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변인별로 분석결과 학년별($\chi^2=71.168$, $p<0.001$), 학업성적 수준별($\chi^2=71.168$, $p<0.001$)로 유의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3학년이 되면서 성적,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는 학생이 1학년보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다른 그룹에 비해 중상위 그룹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에 대하여 고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학업성적이 높아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3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보다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고등학교 종류와 입시제도 등이 다양해지면서 진로선택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3학년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진로교육 방안을 절실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학교 공부의 의미

<표 18> 학교 공부의 의미

(단위 : 명, %)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전혀 안된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전체	χ^2 (p)
전체		333 (50.4)	99 (15.0)	98 (14.8)	27 (4.1)	104 (15.7)	661 (100.0)	무응답 11
학년	1학년	169 (52.0)	51 (15.7)	54 (16.6)	5 (1.5)	46 (14.2)	325 (100.0)	13.095 (0.011)
	3학년	164 (48.8)	48 (14.3)	44 (13.1)	22 (6.5)	58 (17.3)	336 (100.0)	

공부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0.4%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 15.0%,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14.8%, ‘도움이 전혀 안된다’ 4.1%,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1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학년별($\chi^2=13.095$, $p<0.01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80.2%)이 공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도움이 전혀 안된다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19.8%로 10명 중 2명 정도의 학생은 학교 공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보았을 때 학교공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1학년(15.7%)보다 3학년(23.8%)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가 미래의 직업세계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학생들은 학업성취를 위해 더 노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할 때 학교공부와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관련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교과교육에서 진로와 연계한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4) 장래 희망직업

<표 19> 장래 희망직업

(단위 : 명, %)

	남	여	전체	χ^2 (p)
교직	17 (7.8)	60 (26.1)	77 (17.2)	94.333 (0.000)
사업가	8 (3.7)	6 (2.6)	14 (3.1)	
공무원	49 (22.6)	22 (9.6)	71 (15.9)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	10 (4.6)	3 (1.3)	13 (2.9)	
학자	24 (11.1)	8 (3.5)	32 (7.2)	
디자이너	4 (1.8)	21 (9.1)	25 (5.6)	
연예방송인	7 (3.2)	23 (10.0)	30 (6.7)	
회사원	12 (5.5)	12 (5.2)	24 (5.4)	
의사	22 (10.1)	29 (12.6)	51 (11.4)	
요리사	22 (10.1)	18 (7.8)	40 (8.9)	
동물관련직업	4 (1.8)	7 (3.0)	11 (2.5)	
운동선수	24 (11.1)	1 (0.4)	25 (5.6)	
문화예술	5 (2.3)	14 (6.1)	19 (4.3)	
자영업	9 (4.1)	6 (2.6)	15 (3.4)	
전체	217 (100.0)	230 (100.0)	447 100.0	

장래 희망하는 직업은 교직을 원하는 학생이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15.9%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의사 11.4%, 요리사 8.9%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chi^2=94.333, 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교직의 경우 유치원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영어선생님, 교수 등 다양한 교직을 원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9급 공무원부터 외교관까지 다양한 공무원 형태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희망직업은 공무원(22.6%), 학자,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희망직업이 교직(26.1%), 의사, 연예방송인 순으로 나타나 남녀별로 희망직업은 차이가 많았다.

학생들의 장래 희망직업 중 공무원, 교직,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44.9%였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살리기보다 고용안정성을 중시하는 부모세대의 가치판단이 전달되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인 인기직업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직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직종으로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등학교의 자율화 및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살아야 할 미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임을 인지시키고, 다양한 직업세계와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직업들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진로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장래 희망직업 유무

<표 20> 장래 희망직업 유무

(단위 : 명, %)

		예	아니오	전체	χ^2 (p)
전체		462 (69.0)	208 (31.0)	670 (100.0)	무응답 2
학년	1학년	236 (72.4)	90 (27.6)	326 (100.0)	3.505 (0.061)
	3학년	226 (65.7)	118 (34.3)	344 (100.0)	
지역별	제주시	221 (72.2)	85 (27.8)	306 (100.0)	8.212 (0.016)
	서귀포시	139 (61.8)	86 (38.2)	225 (100.0)	
	읍면동	102 (73.4)	37 (26.6)	139 (100.0)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을 희망직업 유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69%정도는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31%는 희망직업이 없었다. 이를 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지역별($\chi^2=8.212$, $p=0.016$)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유의할 정도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희망직업 없는 학생의 비율이 38.2%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귀포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고, 서귀포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로교육이 취약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3학년이 1학년보다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은 많은데도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하고자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1학년 때 가졌던 환상적인 직업은 잃어버리고 현실적인 희망직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이 된 것

<표 21>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이 된 것 (단위 : 명, %)

		학교및 선생님	부모님	사교육 학원	사설 진로 및 진학 정보 기관	친 구 또 는 제 자 매	스스로	기타	전 체	χ^2 (p)
전체		33 (8.0)	104 (25.2)	26 (6.3)	17 (4.1)	24 (5.8)	177 (43.0)	31 (7.5)	412 (100.0)	무응답 260
성별	남	16 (8.3)	59 (30.6)	12 (6.2)	4 (2.1)	8 (4.1)	78 (40.4)	16 (8.3)	193 (100.0)	10.425 (0.108)
	여	17 (7.8)	45 (20.5)	14 (6.4)	13 (5.9)	16 (7.3)	99 (45.2)	15 (6.8)	219 (100.0)	
어머 니의 학력 수준	초졸	1 (25.0)	0 (0.0)	0 (0.0)	0 (0.0)	0 (0.0)	3 (75.0)	0 (0.0)	4 (100.0)	38.616 (0.030)
	중졸	1 (10.0)	2 (20.0)	1 (10.0)	0 (0.0)	2 (20.0)	4 (40.0)	0 (0.0)	10 (100.0)	
	고졸	10 (5.7)	43 (24.7)	11 (6.3)	6 (3.4)	9 (5.2)	85 (48.9)	10 (5.7)	174 (100.0)	
	대졸 이상	20 (11.4)	53 (30.1)	7 (4.0)	9 (5.1)	10 (5.7)	65 (36.9)	12 (6.8)	176 (100.0)	
	기타	1 (2.8)	4 (11.1)	5 (13.9)	2 (5.6)	2 (5.6)	14 (38.9)	8 (22.2)	36 (100.0)	

희망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했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모님’ 25.2%, ‘학교 및 선생님’ 8.0%, ‘사교육 학원’ 6.3%, ‘사설 진로 진학 정보기관’ 4.1%를 차지하고 있다.

희망직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것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성별($\chi^2=10.425$, $p=0.108$), 어머니의 학력 수준별($\chi^2=38.616$, $p=0.0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스스로 40.4%, 부모님 30.6%, 여학생은 스스로 45.2%, 부모님 20.4%로 남학생이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선생님이 도움이 된 비율이 8.0%라는 것은 아직 학교의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중

요한 변수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의 진로지도와 함께 가정에서 진로지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진로에 대한 생각정도

<표 22> 진로에 대한 생각정도

(단위 : 명, %)

		생각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p)
전체		408 (63.1)	74 (11.4)	165 (25.5)	647 (100.0)	무응답 25
성별	남	205 (62.1)	49 (14.8)	76 (23.0)	330 (100.0)	8.560 (0.014)
	여	203 (64.0)	25 (7.9)	89 (28.1)	317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32 (76.2)	4 (9.5)	6 (14.3)	42 (100.0)	16.185 (0.040)
	중상	123 (72.8)	12 (7.1)	34 (20.1)	169 (100.0)	
	중	147 (60.5)	31 (12.8)	65 (26.7)	243 (100.0)	
	중하	78 (57.8)	17 (12.6)	40 (29.6)	135 (100.0)	
	하	25 (53.2)	9 (19.1)	13 (27.7)	47 (100.0)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생각 한다’는 인원은 408명으로 응답인원의 63.1%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생각하지 않는다’ 11.4%, ‘잘 모르겠다’도 25.5%로 나타났다. 이를 변인 별로 분석 한 결과 성별($\chi^2=8.560$, $p=0.014$), 학업성적 수준별($\chi^2=16.185$, $p=0.04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생각하지 않는다와 모르겠다의 비율도 36.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14.8%로 여학생 7.9%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수준별로는 학업성적이 높아질 수록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미래의 사회는 지속적이고 빠른 변화의 세계임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라 평생 동안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육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8) 흥미·적성에 대한 인지정도

<표 23> 흥미·적성 인지정도

(단위 : 명, %)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χ^2 (p)
전체		67 (10.0)	406 (60.9)	179 (26.8)	15 (2.2)	667 (100)	무응답 5
학년	1학년	39 (12.1)	212 (65.6)	66 (20.4)	6 (1.9)	323 (100.0)	14.898 (0.002)
	3학년	28 (8.1)	194 (56.4)	113 (32.8)	9 (2.6)	344 (100.0)	
지역	제주시	36 (11.8)	194 (63.4)	68 (22.2)	8 (2.6)	306 (100.0)	13.554 (0.035)
	서귀포시	13 (5.8)	135 (60.3)	73 (32.6)	3 (1.3)	224 (100.0)	
	읍면동	18 (13.1)	77 (56.2)	38 (27.7)	4 (2.9)	137 (100.0)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0%, ‘대체로 알고 있다’ 60.9%, ‘모른다’ 29.1%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chi^2=14.898$, $p<0.002$), 지역별($\chi^2=13.554$, $p<0.03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흥미·적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 비율이 70.9%로 높게 나온 것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흥미 적성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3학년이 64.5%로 1학년 77.7%보다 13.2%가 낮게 나왔다. 이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3학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귀포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흥미·적성을 알고 있는 학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8%,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김경식(2008)의 연구에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고등학교 적응정도가 낮고, 조정미(2009)도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나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못함으로써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자신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중학교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9) 소질·적성을 알게 된 방법

<표 24> 소질·적성을 알게 된 방법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서	246	36.6	38.1
특기활동을 통해서	260	38.7	40.2
부모님의 유전적 특성을 보고	39	5.8	6.0
기타	101	15.0	15.6
합계	646	96.1	100.0
무응답	26	3.9	
합계	672	100.0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특기활동을 통해서’알게 되었다는 인원이 26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응답인원의 40.2%에 해당된다. 또한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서’알게 되었다는 응답도 246명으로 응답인원의 38.1%정도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은 특기활동 및 적성 흥미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특기 활동교육 및 적성 흥미 검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성·흥미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개인차를 평가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만 측정한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검사결과에 지나친 의존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들은 심리검사를 위한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한 이론가들도 검사결과를 지나치게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직업경험과 일반적인 배경 등이 더 중요시 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10)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표 25> 자신의 소질 탐색에 대한 욕구 (단위 : 명, %)

		매우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별로 알고 싶지 않다	전혀 알고 싶지 않다	전체	χ^2 (p)
전체		320 (48.0)	291 (43.7)	48 (7.2)	7 (1.1)	666 (100.0)	무응답 6
성별	남	143 (41.8)	164 (48.0)	30 (8.8)	5 (1.5)	342 (100.0)	12.125 (0.007)
	여	177 (54.6)	127 (39.2)	18 (5.6)	2 (0.6)	324 (100.0)	
학년	1학년	138 (42.7)	153 (47.4)	29 (9.0)	3 (0.9)	323 (100.0)	8.456 (0.037)
	3학년	182 (53.1)	138 (40.2)	19 (5.5)	4 (1.2)	343 (100.0)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에 대하여 ‘매우 알고 싶다’는 인원은 320명으로 응답인원의 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알고 싶다’는 인원은 291명으로 43.7%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알고 싶지 않은 인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 한 결과 성별($F=12.125, p<0.007$), 학년별($F=8.456, p<0.037$)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에 대하여 매우 알고 싶다는 학생이 91.7%로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소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학생 10%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여 더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소질에 대한 탐색욕구는 여학생이 93.8%로 남학생 8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학년이 93.3%로 1학년 90.1%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강조되는 진로 탐색을 함에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자신의 내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알게 되고, 자신의 꿈을 분명하게 구체화시켜 가게 된다.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가 요청된다.

2) 진로선택의 경향

(1)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

<표 26>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

(단위 : 명, %)

		부모님	선생님	친구나 선배	친척이나 형제자매	사설 교육기관	기타	전체	χ^2 (p)
전체		405 (60.8)	33 (5.0)	98 (14.7)	47 (7.1)	11 (1.7)	72 (10.8)	666 (100.0)	무응답 6
성별	남	214 (63.1)	24 (7.1)	37 (10.9)	21 (6.2)	6 (1.8)	37 (10.9)	339 (100.0)	14.469 (0.013)
	여	191 (58.4)	9 (2.8)	61 (18.7)	26 (8.0)	5 (1.5)	35 (10.7)	327 (100.0)	
학년	1학년	214 (66.5)	15 (4.7)	31 (9.6)	17 (5.3)	8 (2.5)	37 (11.5)	322 (100.0)	20.023 (0.001)
	3학년	191 (55.5)	18 (5.2)	67 (19.5)	30 (8.7)	3 (0.9)	35 (10.2)	344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29 (69.0)	4 (9.5)	4 (9.5)	2 (4.8)	0 (0.0)	3 (7.1)	42 (100.0)	43.724 (0.002)
	중상	121 (71.2)	8 (4.7)	18 (10.6)	6 (3.5)	2 (1.2)	15 (8.8)	170 (100.0)	
	중	160 (63.2)	13 (5.1)	28 (11.1)	19 (7.5)	5 (2.0)	28 (11.1)	253 (100.0)	
	중하	63 (45.0)	4 (2.9)	37 (26.4)	14 (10.0)	4 (2.9)	18 (12.9)	140 (100.0)	
	하	25 (51.0)	4 (8.2)	8 (16.3)	5 (10.2)	0 (0.0)	7 (14.3)	49 (100.0)	

장래 자기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는 누구와 주로 상의 하는지에 대하여 ‘부모님’ 60.8%, ‘친구나 선배’ 14.7%, ‘친척이나 형제자매’ 7.1%, ‘선생님’ 5.0%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을 변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F=14.469$, $p<0.013$), 학년별($F=20.023$, $p<0.001$), 학업성적 수준별($F=43.724$, $p<0.0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진로선택과 관련해서는 선생님과 거의 상의하지 않으며, 주로 학교 외의 부모나 친구, 선배, 형제와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와 관련해서 부모는 진로 정보의 통로이며, 진로 결정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진로 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태령(2011)의 ‘학교의 진로지도가 학생들의 진로계획이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지만 가정 내 변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2) 진로선택 장애요인

<표 27> 진로선택 장애요인

(단위 : 명, %)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학업성적	신체적 조건	경제적 여건	부모의견	전체	χ^2 (p)
전체		191 (29.1)	338 (51.4)	32 (4.9)	34 (5.2)	60 (9.1)	657 (100.0)	무응답 17
경제수준	상	9 (36.0)	10 (40.0)	3 (12.0)	0 (0.0)	3 (12.0)	25 (100.0)	37.914 (0.002)
	중상	47 (32.2)	68 (46.6)	12 (8.2)	2 (1.4)	17 (11.6)	146 (100.0)	
	중	108 (29.8)	192 (53.0)	15 (4.1)	17 (4.7)	30 (8.3)	362 (100.0)	
	중하	25 (25.0)	54 (54.0)	1 (1.0)	13 (13.0)	7 (7.0)	100 (100.0)	
	하	1 (5.3)	12 (63.2)	1 (5.3)	2 (10.5)	3 (15.8)	19 (100.0)	
학업성적수준	상	16 (41.0)	6 (15.4)	5 (12.8)	4 (10.3)	8 (20.5)	39 (100.0)	65.632 (0.000)
	중상	67 (39.6)	66 (39.1)	9 (5.3)	8 (4.7)	19 (11.2)	169 (100.0)	
	중	72 (29.0)	134 (54.0)	12 (4.8)	11 (4.4)	19 (7.7)	248 (100.0)	
	중하	25 (17.9)	91 (65.0)	5 (3.6)	7 (5.0)	12 (8.6)	140 (100.0)	
	하	6 (12.8)	37 (78.7)	1 (2.1)	3 (6.4)	0 (0.0)	47 (100.0)	

자신의 진로 선택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하여 ‘학업성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51.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29.1%, ‘부모의견’ 9.1%, ‘경제적 여건’ 5.2%, ‘신체적 조건’ 4.9%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진로선택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수준별($F=37.914$, $p<0.002$), 학업성적 수준별($F=65.632$,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선택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을 대부분 학업성적, 적성 소질을 몰라서라고 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 보면 학업성적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비율은 경제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적성 소질을 모르는 것을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은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업성적 수준별로 보면 장애요인을 학업성적으로 보는 비율은 학업성적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적성 소질을 모르는 것을 장애요인으로 보는 비율은 학업성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위 그룹 학생들은 부모와의 의견이 장애요인이라는 학생도 20.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진학 희망 고등학교

<표 28> 진학 희망 고등학교

(단위 : 명, %)

		인문계 고교	특수 목적고	전문계고	기타	전체	χ^2 (p)
전체		408 (60.9)	168 (25.1)	49 (7.3)	45 (6.7)	670 (100.0)	무응답 2
학년	1학년	166 (51.1)	125 (38.5)	7 (2.2)	27 (8.3)	325 (100.0)	80.455 (0.000)
	3학년	242 (70.1)	43 (12.5)	42 (12.2)	18 (5.2)	345 (100.0)	
사는 곳	제주시	199 (64.8)	59 (19.2)	29 (9.4)	20 (6.5)	307 (100.0)	25.233 (0.000)
	서귀포시	119 (53.1)	81 (36.2)	9 (4.0)	15 (6.7)	224 (100.0)	
	읍면동	90 (64.7)	28 (20.1)	11 (7.9)	10 (7.2)	139 (100.0)	
경제 수준	상	16 (61.5)	9 (34.6)	1 (3.8)	0 (0.0)	26 (100.0)	26.490 (0.009)
	중상	92 (62.2)	39 (26.4)	4 (2.7)	13 (8.8)	148 (100.0)	
	중	231 (62.3)	87 (23.5)	29 (7.8)	24 (6.5)	371 (100.0)	
	중하	58 (56.3)	31 (30.1)	10 (9.7)	4 (3.9)	103 (100.0)	
	하	9 (47.4)	2 (10.5)	5 (26.3)	3 (15.8)	19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6 (37.2)	27 (62.8)	0 (0.0)	0 (0.0)	43 (100.0)	117.534 (0.000)
	중상	124 (71.7)	42 (24.3)	3 (1.7)	4 (2.3)	173 (100.0)	
	중	168 (66.1)	58 (22.8)	10 (3.9)	18 (7.1)	254 (100.0)	
	중하	78 (56.1)	28 (20.1)	21 (15.1)	12 (8.6)	139 (100.0)	
	하	16 (32.7)	10 (20.4)	14 (28.6)	9 (18.4)	49 (100.0)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294 (64.1)	113 (24.6)	27 (5.9)	25 (5.4)	459 (100.0)	9.081 (0.028)
	맞벌이 안함	109 (54.8)	51 (25.6)	22 (11.1)	17 (8.5)	199 (100.0)	

중학교 졸업 후 어느 고등학교를 입학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60.9%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희망하며, 특수목적고 25.1%, 전문계고는 6.7%로 나타나고 있다. 진학 희망 고등학교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chi^2=80.455$, $p<0.001$), 지역별로는($\chi^2=25.233$, $p<0.001$), 경제수준별로는($\chi^2=26.490$, $p<0.009$), 학업성적 수준별로는($\chi^2=117.534$, $p<0.001$), 부모님 맞벌이 여부(χ^2

=9.081 , $p<0.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인문계 고등학교(60.9)나 특수 목적고(25.1%)를 희망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보다 3학년이 인문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귀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이나 학업성적 수준은 낮아질수록 전문계고 희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가 맞벌이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문계고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하지 않는 경우는 전문계고 희망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3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4) 대학 진학 이유

<표 29> 대학 진학 이유

(단위 : 명, %)

		깊이 있는 학문연구	명예나 사회적 지위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유리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	전체	χ^2 (p)
전체		37 (5.5)	69 (10.3)	502 (74.8)	20 (3.0)	43 (6.4)	671 (100.0)	무응답 1
성별	남	20 (5.8)	44 (12.8)	238 (69.2)	10 (2.9)	32 (9.3)	344 (100.0)	16.658 (0.002)
	여	17 (5.2)	25 (7.6)	264 (80.7)	10 (3.1)	11 (3.4)	327 (100.0)	
학년	1학년	17 (5.2)	25 (7.6)	248 (75.8)	7 (2.1)	30 (9.2)	327 (100.0)	13.646 (0.009)
	3학년	20 (5.8)	44 (12.8)	254 (73.8)	13 (3.8)	13 (3.8)	344 (100.0)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하여 ‘원하는 직업분야로 진출하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학생이 74.8%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명예나 사회적 지위’ 10.3%,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 6.4%, ‘깊이 있는 학문연구’ 5.5%,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유리’ 3.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이유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chi^2=16.658$, $p=0.002$), 학년별($\chi^2=13.646$, $p=0.009$)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문연구를 위해서라고 하는 학생은 5.5%에 불과했고, 74.8%의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을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다. 이는 대학을 졸업해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을 위해서라는 의견은 여학생이 80.7%로 남학생 69.2%보다 많았고, 명예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는 의견은 남학생이 12.8%로 여학생 7.6%보다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명예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라는 의견은 3학년이 12.8%로 1학년 7.6%보다 많았고,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은 1학년이 9.2%로 3학년 3.8%보다 많았다.

(5) 희망직업에 대한 의견이 부모님과 다를 경우 결정방법

<표 30> 희망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결정방법 (단위 :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	482	71.7	72.9
부모님 결정	62	9.2	9.4
선생님과 상의	35	5.2	5.3
모르겠다	82	12.2	12.4
합계	661	98.4	100.0
무응답	11	1.6	
합계	672	100.0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는 학생이 72.9%로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부모님 결정’ 9.2%, ‘선생님과 상의’ 5.2%, ‘모르겠다’ 12.2%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사결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시 합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진로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무엇보다 개개인이 자기 책임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하고, 대안비교·분석·평가·선택의 일련과정을 스스로 경험해 봄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1)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31>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위 : 명, %)

		가정의 배경	돈	학력	적성과 능력	학연이나 지연	전체	χ^2 (p)
전체		60 (9.1)	192 (29.1)	180 (27.3)	213 (32.3)	14 (2.1)	659 (100.0)	무응답 13
학년	1학년	29 (9.0)	87 (26.9)	79 (24.5)	125 (38.7)	3 (0.9)	323 (100.0)	15.191 (0.004)
	3학년	31 (9.2)	105 (31.3)	101 (30.1)	88 (26.2)	11 (3.3)	336 (100.0)	
부모님 맞벌이 여부	맞벌이 함	35 (7.8)	135 (29.9)	136 (30.2)	133 (29.5)	12 (2.7)	451 (100.0)	11.426 (0.022)
	맞벌이 안함	23 (11.7)	54 (27.6)	42 (21.4)	75 (38.3)	2 (1.0)	196 (100.0)	

현재 우리사회에서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적성과 능력’ 32.3%, ‘돈’ 29.1%, ‘학력’ 27.3%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 ‘가정의 배경’ 9.1%, ‘학연이나 지연’ 2.1%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chi^2=15.516$, $p=0.004$), 부모님 맞벌이 여부($\chi^2=31.04$, $p=0.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적성과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돈과 학력도 높게 나타났고, 가정의 배경 9.1%, 학연·지연 2.1%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별로 보면 적성과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1학년 38.7%, 3학년 26.2%로 고학년이 될수록 적어지고, 돈, 학력, 가정배경, 학연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진로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이 요청된다.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는 학력이 30.2%로 적성과 능력 29.5%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

<표 32>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

(단위 : 명, %)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	사회적 공헌도	능력과 적성	안정성	장래성	부모님 희망	전체	χ^2 (p)
전체		45 (6.9)	40 (6.1)	23 (3.5)	398 (60.7)	99 (15.1)	34 (5.2)	17 (2.6)	656 (100.0)	무응답 16
성 별	남	28 (8.4)	25 (7.5)	15 (4.5)	193 (58.0)	44 (13.2)	15 (4.5)	13 (3.9)	333 (100.0)	13.989 (0.030)
	여	17 (5.3)	15 (4.6)	8 (2.5)	205 (63.5)	55 (17.0)	19 (5.9)	4 (1.2)	323 (100.0)	
학 년	1학년	12 (3.7)	22 (6.8)	12 (3.7)	200 (61.9)	46 (14.2)	16 (5.0)	15 (4.6)	323 (100.0)	20.660 (0.002)
	3학년	33 (9.9)	18 (5.4)	11 (3.3)	198 (59.5)	53 (15.9)	18 (5.4)	2 (0.6)	333 (100.0)	

장래 학생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고려해야하는 점에 대하여 ‘능력과 적성’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60.7%, ‘안정성’ 15.1%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7%미만의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선택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성별($\chi^2=13.989$, $p=0.003$), 학년별($\chi^2=20.66$, $p=0.002$)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은 직업선택 시 물질적 풍요나 안정성보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직업선택 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여학생이 63.5%로 남학생 58.0%보다 많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 사회적 공헌도, 부모님 희망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할 때 자신의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년별로 보면 능력과 적성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물질적 풍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앞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생목표로 돈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일관된 결과이다.

(3) 직업을 갖는 이유

<표 33> 직업을 갖는 이유

(단위 : 명, %)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보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개발	사회생활에 참여	전체	χ^2 (p)
전체		224 (34.0)	201 (30.5)	41 (6.2)	142 (21.6)	50 (7.6)	658 (100.0)	무응답 14
성별	남	125 (37.3)	99 (29.6)	28 (8.4)	64 (19.1)	19 (5.7)	335 (100.0)	12.596 (0.013)
	여	99 (30.7)	102 (31.6)	13 (4.0)	78 (24.1)	31 (9.6)	323 (100.0)	
학년	1학년	90 (27.9)	116 (35.9)	22 (6.8)	74 (22.9)	21 (6.5)	323 (100.0)	14.963 (0.005)
	3학년	134 (40.0)	85 (25.4)	19 (5.7)	68 (20.3)	29 (8.7)	335 (100.0)	
경제 수준	상	2 (8.0)	14 (56.0)	5 (20.0)	4 (16.0)	0 (0.0)	25 (100.0)	29.218 (0.023)
	중상	50 (34.2)	46 (31.5)	9 (6.2)	32 (21.9)	9 (6.2)	146 (100.0)	
	중	124 (34.0)	104 (28.5)	18 (4.9)	87 (23.8)	32 (8.8)	365 (100.0)	
	중하	42 (41.6)	28 (27.8)	7 (6.9)	17 (16.8)	7 (6.9)	101 (100.0)	
	하	5 (27.8)	7 (38.9)	2 (11.1)	2 (11.1)	2 (11.1)	18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11 (25.6)	16 (37.2)	7 (16.3)	6 (14.0)	3 (7.0)	43 (100.0)	28.446 (0.028)
	중상	65 (38.0)	60 (35.1)	7 (4.1)	27 (15.8)	12 (7.0)	171 (100.0)	
	중	70 (28.2)	72 (29.0)	18 (7.3)	67 (27.0)	21 (8.5)	248 (100.0)	
	중하	58 (42.0)	34 (24.6)	6 (4.3)	29 (21.0)	11 (8.0)	138 (100.0)	
	하	17 (37.0)	15 (32.6)	2 (4.3)	10 (21.7)	2 (4.3)	46 (100.0)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학생이 34%로 가장 많고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3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는 학생은 21.6%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 성별($\chi^2=12.596$, $p=0.013$), 학년별($\chi^2=14.963$, $p=0.005$), 경제수준별($\chi^2=29.218$, $p=0.023$), 학업성적 수준별($\chi^2=28.446$, $p=0.028$)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삶의 보람,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골고루 나왔다. 성별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생각은 남학생이(37.3%)로 여학생(30.7%)보다 많았고,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여학생(24.1%)이 남학생(19.1%)보다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7.9%에서 40.0%로 많아지고 있고 삶의 보람이나 자기능력 개발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적어지고 있다. 직업이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업에 대한 생각이 너무 편협되지 않도록 삶의 보람이나 자기 능력개발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진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수준이나 학업성적 수준에서는 중하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이 결혼 후 직업참여에 대한 인식

<표 34> 여성이 결혼 후 직업참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찬성	반대	전체	x ² (p)
전체		475 (71.9)	63 (11.7)	538 (100.0)	모르겠다 122 무응답 12
성별	남	207 (82.5)	44 (17.5)	251 (100.0)	15.414 (0.000)
	여	268 (93.4)	19 (6.6)	287 (100.0)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12명의 미 응답자를 제외한 660명이 응답하였다. 찬성하는 인원은 475명으로 응답인원의 71.9%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찬성하고 있다.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한 결과 성별($\chi^2=15.414, 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았을 때 찬성비율이 남학생 82.5%, 여학생 93.4%로 남녀간의 의식차이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전체적으로는 많이 극복되었으나, 아직 남녀간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은 사회과의 '개인과 사회생활' 등과 같은 영역에서 역할 놀이학습을 통해 지도하는 통합교육도 효과적일 것이다.

(5) 직업 귀천 의식

<표 35> 직업 귀천 의식

(단위 : 명,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다	매우 많다	전체	F(p)
전체		99 (15.0)	163 (24.6)	238 (36.0)	114 (17.2)	48 (7.3)	662 (100.0)	무응답 10
성별	남	50 (14.7)	66 (19.5)	120 (35.4)	69 (20.4)	34 (10.0)	339 (100.0)	11.413 (0.000)
	여	49 (15.2)	97 (30.0)	118 (36.5)	45 (13.9)	14 (4.3)	323 (100.0)	
학년	1학년	45 (13.8)	65 (20.0)	114 (35.1)	74 (22.8)	27 (8.3)	325 (100.0)	10.845 (0.001)
	3학년	54 (16.0)	98 (29.1)	124 (36.8)	40 (11.9)	21 (6.2)	337 (100.0)	
경제 수준	상	22 (12.8)	28 (16.3)	67 (39.0)	35 (20.3)	20 (11.6)	172 (100.0)	6.866 (0.001)
	중	53 (14.4)	98 (26.6)	135 (36.6)	63 (17.1)	20 (5.4)	369 (100.0)	
	하	24 (20.3)	35 (29.7)	36 (30.5)	16 (13.6)	7 (5.9)	118 (100.0)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귀하고 천함이 ‘매우 많다’는 학생이 7.3%이며, ‘많다’ 17.2%로 나타나고 있다. ‘조금 있다’는 인원은 23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인원의 36%이다. ‘별로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24.6%, ‘전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15%로 나타났다.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는지 정도에 대하여 변인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F=11.413$, $p < 0.001$), 학년별($F=10.845$, $p=0.001$), 경제수준별($F=6.866$,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5.8%로 여학생 54.7%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1학년이 66.2%로 3학년 5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상 70.9%, 중 59.1%, 하위 그룹 50%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업에 대한 편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에게 세상의 모든 직업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게 하여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6)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

<표 36>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이

(단위 : 명, %)

		매우 그렇다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p)
전체		18 (2.7)	123 (18.6)	398 (60.0)	124 (18.7)	663 (100.0)	무응답 9
성별	남	14 (4.1)	71 (20.9)	183 (54.0)	71 (20.9)	339 (100.0)	13.344 (0.004)
	여	4 (1.2)	52 (16.0)	215 (66.4)	53 (16.4)	324 (100.0)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9명의 무 응답자를 제외한 663명이 응답하였다. 차이가 '매우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18명으로 응답인원의 2.7%이며, '그렇다' 18.6%, '전혀 그렇지 않다' 60%, '잘 모르겠다' 18.7%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chi^2=13.344$, $p=0.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학생들은 60%정도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21.3%정도 있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6.4%로 남학생 54%보다 높았다.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차이와 관련하여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 60%는 김자옥(2006)이 수원시 소재 중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의 45.5%보다 높은 결과이다. 이는 제주지역이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편견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래 희망직업과 관련해서 볼 때 남녀별로 희망직업의 차이가 많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모르겠다는 학생도 다소 많으므로 진로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직업정보 인지정도

<표 37> 직업정보 인지정도

(단위 : 명, %)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	전혀 모른다	전체	F(p)
전체		46 (6.9)	238 (35.8)	249 (37.5)	111 (16.7)	20 (3.0)	664 (100.0)	무응답 8
학년	1학년	30 (9.2)	128 (39.1)	125 (38.2)	39 (11.9)	5 (1.5)	327 (100.0)	18.780 (0.000)
	3학년	16 (4.7)	110 (32.6)	124 (36.8)	72 (21.4)	15 (4.5)	337 (100.0)	
경제 수준	상	4 (15.4)	13 (50.0)	7 (26.9)	2 (7.7)	0 (0.0)	26 (100.0)	3.759 (0.005)
	중상	14 (9.5)	59 (40.1)	51 (34.7)	21 (14.3)	2 (1.4)	147 (100.0)	
	중	17 (4.6)	129 (35.0)	151 (40.9)	63 (17.1)	9 (2.4)	369 (100.0)	
	중하	9 (8.9)	33 (32.7)	31 (30.7)	20 (19.8)	8 (7.9)	101 (100.0)	
	하	1 (5.6)	4 (22.2)	8 (44.4)	4 (22.2)	1 (5.6)	18 (100.0)	
학업 성적 수준	상	7 (16.3)	22 (51.2)	12 (27.9)	1 (2.3)	1 (2.3)	43 (100.0)	50.280 (0.000)
	중상	12 (6.9)	83 (48.0)	51 (29.5)	24 (13.9)	3 (1.7)	173 (100.0)	
	중	14 (5.6)	85 (33.9)	103 (41.0)	44 (17.5)	5 (2.0)	251 (100.0)	
	중하	10 (7.2)	33 (23.7)	58 (41.7)	32 (23.0)	6 (4.3)	139 (100.0)	
	하	3 (6.5)	12 (26.1)	19 (41.3)	7 (15.2)	5 (10.9)	46 (100.0)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6명으로 전체 응답인원의 6.9%이다.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인원은 238명으로 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49명으로 응답인원의 37.5%, ‘잘 모르겠다’는 16.7%이다. 이를 변인별로 분산분석 한 결과 학년별($F=18.78$, $p<0.001$), 경제수준별($F=3.759$, $p=0.005$), 학업성적 수준별($F=7.566$, $p<0.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매우 잘 아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학생이 자신

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금알거나 대략적인 보통정도의 정보만을 알거나 모르고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모른다는 학생이 1학년은 13.4%인 반면 3학년이 2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은 낮아질수록 직업정보를 모른다는 학생이 많아졌다. 이는 중학교 3학년 및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이 진로탐색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정보에 대해서도 취약함을 나타내고 있어 더 많은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맞는 효과적인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역 각 3개교 총672명 학생이 대답한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경험 및 요구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년별로는 3학년이,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지역이 진로교육 경험이 적었다. 학교에서 받는 진로교육 내용은 적성·흥미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교 진로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과 진로교육에 만족한다는 학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로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하는 중 3학생들의 만족도와 도움 받은 정도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고 싶어 하는 진로교육 내용은 직업적성·소질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진로교육 방법은 현장견학이나 실습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현장견학이나 실습 등의 방법으로 직업적성, 소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특히 3학년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서귀포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정보 탐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로정보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학생(45.1%)이 많았으나 1학년보다 3학년 학생이 진로정보를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더 적었고, 진로정보를 얻는 경로는 부모, 인터넷,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탐색은 가장 강조되어야 하는 진로교육 내용이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히 3학년 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지원

과, 부모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최종 인생목표를 돈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현재 고민은 학업성적, 진로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직업은 교직, 공무원, 의사 등 몇 개의 인기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희망직업이 없는 학생(31%)도 많았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대부분(91.7%)은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1학년보다 3학년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고, 소질에 대한 탐색욕구가 더 높아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3학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특히 김경식(2008), 조정미(2009)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자신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은 경우 고등학교 적응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로결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은 고등학교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넷째, 진로 선택의 경향을 보면, 장래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한 상의 대상은 부모님, 친구나 선배, 친척이나 형제자매,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 시 부모와 의견이 다른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진로선택 장애요인으로 학업성적과 적성·소질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문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고, 대학진학 이유는 원하는 직업분야에 대한 진출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에 따라 부모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이며, 또한 스스로 진로결정을 함에 있어 소질과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와 관련된 의식을 살펴보면, 인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적성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그에 못지않게 돈이나 학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많았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적성과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은 줄어들고 돈, 학력, 가정배경, 학연·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직업선

택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을 들고 있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능력과 적성의 비율은 낮아지면서 물질적 풍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이 찬성하였고, 직업의 귀천의식 또한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제주지역 중학생들의 진로교육실태 및 진로의식은 전체적으로 진로교육지표조사나 타 지역에서 이루어진 진로교육관련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역적 분석에서 임영주(2001)는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하여 진로교육이 취약하다라고 하였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읍·면지역보다 서귀포시 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장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교육 방법은 현장 견학 및 실습이다. 지역 내 다양한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학부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학생들에게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역 사회와 함께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교육의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는 본의 아니게 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부모가 하는 일의 세계에서마저 차단되게 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욱 어렵게 하여 왔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제주지역의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하여 현장 견학과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되는지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주5일 수업제에 맞춰 지역 도서관은 물론 박물관, 미술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토요프로그램²⁾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개설한 토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역할을 하여 지역 사회가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게하고, 지역기관·단체들이 진로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로서 자진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진로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도움여부, 희망직업 유무 등에서 서귀포시 지역은 일관되게 다른 지역보다 낮은 비율이 나와 진로교육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물론 교사, 학부모 등의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하고 이를 자료화하여 진로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 지역에 맞는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은 쌍방향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진로교육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작용할 것이다.

넷째, 여러 학교에서 경험한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실천방안이나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 관심이 증폭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그 실천은 초기단계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나 노하우 등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 힘들고 귀찮은 업무로 인식될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 관련은 물론 각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방법, 실천방안 등 모든 진로교육 관련 노하우들을 교사들 간에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과는 진로교육과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간된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매뉴얼을 보면 일반사회 영역은 전체적으로 진로교육과 고르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 다양한 생활에서의 역할균형 필요성 인식 부분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깊은 관련성을 인식하여 사회과 지도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든 교사들은 각 교과에서의 진로교육 방안 모색은 물론 다양한 진로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선생님에게서 진로정보를 얻는 학생은 21.4%, 선생님이 희망직업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학생은 8.0%, 선생님과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을 상의하는 학생은 5%에 불과했다. 진로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인지하여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일곱째, 학부모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정보원이며 가장 많은 의논을 하는 대상이므로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부모이고,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부모이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사회 변화의 흐름과 다양한 일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의 관심과 협조는 물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방향의 조언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이 부모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세계를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은 서로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사이에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보영(2010). 진학보다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10대의 미래지도. 노란우산.
- 강재태·배중훈·강대구(2003). 진로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강재태·배중훈(2005).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경상대학교 출판부.
- 고은영(2007). 제주지역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운영 실태와 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5. 3). 진로교육 제도화를 위한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2010). 사회과과통합진로교육교수·학습자 개발 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 김구하(2000).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나라외(2009).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사회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자(2001). 중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학생의 진로의식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관(2005).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2002).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진로교육 내용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옥(2006). 중학생 진로교육의 실태 및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민(2010). 청소년 직업관·경제관 형성을 위한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동문사.
- 김충기외4인(2011). 진로상담과 진로교육. 동문사.

- 김태령(2011). 학교의 진로지도가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보·방혜진(2010)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현안과 정책방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박대준·서유정(2011) 단위학교 진로교육 실천역량 강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마순권(2004). 중학생의 진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맹영임, 임경희(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인식조사(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 총서 08-21-0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은영(2010).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학부모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진로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교혁(2003). 제주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동진(2002).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에서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경희(2009) 진로개척을 지원하는 사회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기용(2008). 중학생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김봉환·조대연·임언(2006). 교과통합형 진로지도 모형개발과 적용(정책연구2006-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도현(2000). 중학생의 진로 가치관과 진로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정윤경(2009). 진로교육 지표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대외(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교육정책연구 2004-일-03). 교육인적자원부.
- 이지수(2007). 사회과 교과서의 진로교육 내용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정윤경·이종범(2010).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201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외(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구축(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정(1999). 중학교 진로교육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두순(1992). 중학교 진로교육 강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2009).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분석:2006 PISA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영주(2001). 중학교 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연(2007). 여중생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대한 실태조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명희외(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교육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기본연구2010-3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석민(1985). 진로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진곤(2010).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과학사.
- 정예숙(2005). 중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초중등 진로교육 추진 계획.
- 조정미(2009). 고등학생 진로의식 향상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석(1998). 중학생의 진로교육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진로교육학회(2011).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현석중(2002).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인식 수준 분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war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of Jeju Province

Gyoung-Ran Kim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Il-Bang Ki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ffer effective career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searching willingness of decision course in Jeju. It was done to the middle school student living in Jejusi, segwiposi, total number of 672 students.

First, considering the experience taken career education or the course decided, many of the students has been an career educational experience but third grade students or segwipo area students has a lest experience chance. Most of the career education course in school was covered with aptitude test and interesting test. I think there are many chance taken to the students with not satisfying the demands, because many of the student expressed the little short of chance satisfied with his demand items. Especially middle school students express the satisfaction a low to be counseling on the choice of high school. In terms of career education, most of the students want to be educated about the aptitude jobs, natural aptitude, and the way of career taken counseling with field training and field trips.

Second, Considering the meeting career educational chance exposed to the students, the number of the third grade student was less than it's of the first grade students. The way of the obtaining the information of the career

education was cleared to be taken from a parents, an internet and a teacher. It is clearly known that the most important counseling information would be provided to parents and third grade students oneself.

Thirds, one of the most important aims in the life styles related with ego-consciousness is the money and the trouble some are school records and career counseling among the students. The future interesting job was gotten together into the teacher, the government officer and the doctor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ats more there is no plan students. Although many of the students have known what he want to be in the future, they want to get the more career education informations.

Fourths, Whom they want to take consult with about future career education are the parents, friends, seniors, relatives, siblings and teachers. When they have met the opinion different from the parents, they want to have decide the future plan themselves. They said that school records and ignorance of aptitude or character prevents them from doing decide the plan. They want to go on a special high school, an academic high school and the college to get a job which they wish.

Fifths, Although the greatest number of the students regards aptitude and ability as a facts influenced to the life success, many of the student consider the important things to be a money and an academic ability. The more they become a upper grades the more they have a negative opinions as the money, academic ability, background, regionalism, and the school relations was preoccupied the ability and the aptitude. They agreed to that the married woman has followed to the job market and that all occupation are equally honorable.

부 록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현대의 직업세계는 급속도로 세분화,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하여 사회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인 진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제주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실태 및 진로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제주지역 중학생들에게 맞는 진로교육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로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경 란

(일반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1학년 ② 3학년
3. 사는 곳
 - 시 동지역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 시 읍면지역 ① 제주동부 ② 제주서부 ③ 서귀동부 ④ 서귀서부
4. 학생이 생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5. 학생이 생각하는 학업성적 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아버지 학력 수준 ① 초등졸 ② 중졸 ③ 고등학교졸 ④ 대학졸 이상
⑤ 기타
7. 어머니 학력 수준 ① 초등졸 ② 중졸 ③ 고등학교졸 ④ 대학졸 이상
⑤ 기타
8. 부모님 맞벌이 여부 ① ○ ② ×

진로교육

(※ 진로교육 예시 : 나의 적성 찾기, 미래의 나의 직업 알기, 나의 꿈, 희망계획 세우기 등)

1. 학교에서 진로와 관련된 교육이나 지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많다 ➡ 1-1로! ② 몇 번 있다 ➡ 1-1로! ③ 전혀 없다 ➡ 2로!

1-1. 학교에서 받았던 진로교육이나 지도는 자신의 장래 진로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2. 진로교육이나 지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① 적성·흥미검사 ② 직업세계 정보와 지도 ③ 직업현장 방문 ④ 진학정보 ⑤ 기타

2. 사설 교육기관(학원 또는 진로 전문기관 등)에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2-1로! ② 없다 ➡ 3으로!

2-1 사설 교육기관에서 받은 진로교육이나 상담이 장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진로교육을 받는다면 알고 싶은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직업적성·소질 정보 ② 유망직업 정보 ③ 진학 정보 ④ 자격증 정보 ⑤ 기타()

4.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 및 상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지 못한다 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5.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장래 진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보(직업에서 요구하는 적성과 흥미, 필요한 공부, 자격증, 기술 등)를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할 수 있다 ② 할 수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할 수 없다 ⑤ 전혀 할 수 없다

6. 학생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 ① 선생님 ② 부모 ③ 선배나 친구 ④ 신문, 라디오, TV, 도서 ⑤ 인터넷

7. 학교에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책자나 인쇄물의 제공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조금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8. 학교에서 진로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장견학, 실습 ②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③ 전문가 초빙 강의
④ 진로담당교사를 통해 ⑤ 별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⑥ 기타

9. 학교에서 충분한 진로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험준비 때문 ② 진로 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③ 진로 전담교사가 없어서 ④ 관심이 부족해서
10. 학생이 미래의 진로설계를 위해 학교에서 제공되었으면 하고 가장 바라는 것은?(자유롭게 쓰세요)
-

진로인식

11. 학생의 최종 인생목표는 무엇입니까?
 ① 돈 ② 명예 ③ 권력 ④ 인기 ⑤ 봉사 ⑥ 기타() ⑦ 아직 없다
12. 학생이 장래 희망하는 직업이 현재 있습니까?
 ① 예 ➡ 12-1로! ② 아니오 ➡ 13으로!
 12-1 학생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인가요? _____
 12-2 학생이 미래 희망직업을 결정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및 선생님 ② 부모님 ③ 사교육, 학원 ④ 사설 진로 및 진학 정보기관
 ⑤ 친구 또는 형제자매 ⑥ 스스로 ⑦ 기타 _____
13. 평소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① 생각한다 ② 생각하지 않는다 ③ 잘 모르겠다
14.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대체로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5. 만약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성검사나 흥미검사를 통해서 ② 특기활동을 통해서(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③ 부모님의 유전적 특성을 보고 ④ 기타 _____
16. 자신의 소질에 대하여 지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까?
 ① 매우 알고 싶다 ② 알고 싶다 ③ 별로 알고 싶지 않다 ④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7. 장래 자기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는 누구와 주로 상의하십니까?
 ① 부모님 ② 선생님 ③ 친구나 선배 ④ 친척이나 형제자매 ⑤ 사설 교육기관(전문상담기관 등) ⑥ 기타

18. 자신의 진로 선택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적성과 소질을 몰라서 ② 학업성적 ③ 신체적 조건 ④ 경제적 여건 ⑤ 부모의견 ⑥ 성별(남,여)

19. 중학교 졸업 후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인문계 고교 ② 특수 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등) ③ 전문계고(농업고, 공업고, 수산고 등)
④ 기타

20.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깊이 있는 학문연구 ②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③ 원하는 직업분야 진출
④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유리하므로 ⑤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21.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점에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좋은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을 준다
②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준다
③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④ 도움이 전혀 안 된다
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22. 현재 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 ① 진로 ② 성적 ③ 친구 ④ 가족 ⑤ 건강 ⑥ 기타

23.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생의 성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의 배경 ② 돈 ③ 학력 ④ 적성과 능력 ⑤ 학연이나 지연

24. 장래 학생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물질적 풍요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③ 사회적 공헌도 ④ 능력과 적성 ⑤ 안정성
⑥ 장래성 ⑦ 부모님 희망

25.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돈을 벌기 위해 ② 삶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③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④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⑤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26. 여성이 결혼 후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적극 반대 ⑤ 모르겠다

27.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조금 있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8. 남자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직업)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전혀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29. 학생이 원하는 직업이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자신이 선택하여 결정하겠다 ② 부모님 결정에 따르겠다 ③ 선생님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30. 학생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보통이다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